

2011년 광주·전남지역 오리산업 육성교육 성료

하반기 중 경기, 충청, 전라도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개최

- ① 정정우 전라남도지회장
- ②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창호 회장



교육에 참석한 전남 회원들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5일(수),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프라자에서 「광주·전남지역 오리산업 육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 지회가 주관하여, FTA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과 수입축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농가인지도를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였다.

금번 교육은 축산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오리업계 현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 오리관련 정책방향과 지원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 가금담당 전익성사무관은 축산업 허가제, 오리산업 현황 및 당면 과제 등 ‘오리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축산업 허가제가 ’12

행사스케치

2011년 광주·전남지역 오리산업 육성교육 성료



① 오리질병에 관해 교육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권용국연구원 ② 농림수산식품부 전익성 사무관의 '오리산업 정책방향' 발표 ③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 ④ 축산업 허가제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이경현 나주시지부장 ⑤ HACCP 직불금 예산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박성현 대표(유산장농원) ⑥ 오리도양장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김상덕 대표(성실농산)

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축산업 허가제 요건 등에 대한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또, 2010년 연말 발생한 AI로 어느 때보다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권용국연구관의 '국내 오리질병 발생과 대책'에 대한 커리큘럼 진행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안병선과장은 전남의 축산업 현황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 등 오리산업의 제도 개선 과제 및 오리 사육 종합대책을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였으며, 교육 참여자들의 집중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느 교육 때보다 높은 참석율을 자랑하였으며, 문답식 교육을 통하여 다변적인 축산정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숙지하였다.

한편, 우리 협회는 하반기 중 「2011년 오리산업 육성교육」을 경기, 충청, 전라도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개최하여, 오리산업 정책 및 질병·방역 분야의 해당 지역 공무원 및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